



# Art

아트인컬처  
September 2023

Special Feature /  
사진은 마술이다  
'사진 이후 사진'의 존재론  
컨템퍼러리 사진가 51인

Artists /  
제안다지, 김중의 낙원

Art Market /  
메가갤러리, 서울 '상륙작전'  
키아프+프리즈, 기회? 위기?  
옥션, 폭락과 반등의 파도





100

영혼 모습이다. 그림 자체가 형제 사의 연체에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형제 그림이 둘의 존재를 같이 통째리서로 존재하는 양으로 그려졌다면, 그의 그림은 그림대로 해도 그림의 형상들이 어떤 정황을 갖는지, 어떤 시간의 교상들을 향하는 것들이나 다른 패턴을 만드는지, 형태와 형태가 부딪히고 겹치거나 다른 패턴을 만드는지, 무엇을 할지와 무슨 색을 쓸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림들은 온갖 기호와 패턴의 차이를 차용(채용)하고 있다.

**아버지의 메모와 딸의 그림**

그런데 내게 주가는 친정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1989년 내 주가 중독에 빠졌고 그 결과 죽어간다는 정신 질환을 앓았던 아버지의 노년에는 해독하게 유언과 조항을 향한 기록이 있었다. 서상에 부러져 남긴 메모는 생전에 내가 지켜서 볼까나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남겨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편지처럼 책을 썼다. 그간 유언장의 화면을 알리고 유언의 행위를 반복했던 지점이 아버지가 그토록 남겼던 조항들을 추스려낸 것임을 알게 해주는 데도, 메모 중반부터 조항의 외상을 위한 그림이 그들 조항들을 더욱더 안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어진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를 감명하게 한 기억은 그림에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해독하지 않고, 그림을 묘사하지 않는다. 책에서 작가는 그의 유과 그림을 구별하는 지점에서 그림을 들 사이에 놓인 유희적 사건, 유희적 사건의 지점에서 아버지가 서상과 서술하던 유희와 비유희적이라는 상황이 존재로서 메모 중반의 기호와 조항을 끌어내는 모습이다. 유언장과 유언 제언의 흐름으로부터 노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림은 그가 원한 기호들을 화면에 펼쳐내다. 하지만 그것은 살점을 통해 아버지의 세계를 치유시키기도 아버지의 메모와 딸의 그림 사이에 흔들 수 없는 지점을 인지하면서도 원초적인 공명을 이루려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이해할 수 없게 일컫할 수 없는 아버지 행한 기억은 크면(Back)의 장점으로 두께를 담담하게 읽어내려와 다시 붙여나가는 연체적 패턴으로 변해간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전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잃지 않을까. 어둠을 채워내는 행위는 양상을 만들며 보내고 싶어 생전에 남긴 존재 채움으로 변해, 행위를 완성하고, 온전한 유희의 존재로서, 당시의 감정의 표상을 기술해 담고자 함정되지 못한 현실이라 존재로서 그림으로 남겨지고, 유희적으로

연체로서의 행적 혹은 기억은 온전한 마음을 분석하여 외상적 행위를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직관적이고 직관적 결과물이기도 제의 의도와 주변의 아버지를 포함한 제의의 실제, 실제 행적이라는 사실, 제의의 행적을 남기면서도 비유희적 행위의 존재를 배우며 여기는 그의 온전한 행위이다. 제의의 존재는 온전한 행적에 대한 온전한 존재로서 존재의 의도를 표현한다. 온전한 행적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온전한 행적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으로 행적의 존재를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온전한 아버지의 행적을 그릴 수 있는 행적의 기록과 제의는 제의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기록하는 데에 있는 행적이며, 온전한 행적의 존재를 표현하는 것은 온전한 행적을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이미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이미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이미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이미 있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버지의 메모와 딸의 그림

그런데 내게 주가는 친정아버지에게서 온 것이다. 1989년 내 주가 중독에 빠졌고 그 결과 죽어간다는 정신 질환을 앓았던 아버지의 노년에는 해독하게 유언과 조항을 향한 기록이 있었다. 서상에 부러져 남긴 메모는 생전에 내가 지켜서 볼까나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어서 남겨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편지처럼 책을 썼다. 그간 유언장의 화면을 알리고 유언의 행위를 반복했던 지점이 아버지가 그토록 남겼던 조항들을 추스려낸 것임을 알게 해주는 데도, 메모 중반부터 조항의 외상을 위한 그림이 그들 조항들을 더욱더 안정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어진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를 감명하게 한 기억은 그림에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해독하지 않고, 그림을 묘사하지 않는다. 책에서 작가는 그의 유과 그림을 구별하는 지점에서 그림을 들 사이에 놓인 유희적 사건, 유희적 사건의 지점에서 아버지가 서상과 서술하던 유희와 비유희적이라는 상황이 존재로서 메모 중반의 기호와 조항을 끌어내는 모습이다. 유언장과 유언 제언의 흐름으로부터 노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림은 그가 원한 기호들을 화면에 펼쳐내다. 하지만 그것은 살점을 통해 아버지의 세계를 치유시키기도 아버지의 메모와 딸의 그림 사이에 흔들 수 없는 지점을 인지하면서도 원초적인 공명을 이루려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이해할 수 없게 일컫할 수 없는 아버지 행한 기억은 크면(Back)의 장점으로 두께를 담담하게 읽어내려와 다시 붙여나가는 연체적 패턴으로 변해간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전서명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을 잃지 않을까. 어둠을 채워내는 행위는 양상을 만들며 보내고 싶어 생전에 남긴 존재 채움으로 변해, 행위를 완성하고, 온전한 유희의 존재로서, 당시의 감정의 표상을 기술해 담고자 함정되지 못한 현실이라 존재로서 그림으로 남겨지고, 유희적으로

101





ARTIST: 김 (Gilda de Basique) 1954년 10월 15일 생.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다양한 미술 활동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비'라는 주제로 작업했다. '아비'는 아버지의 한자 뜻이다.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이다.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이다.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한자이다.

엄은 모습이다. 그림 자체가 말에서 연케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형의 그림이 몸의 흔적을 가리키는 고정된 캔버스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의 그림은 몸의 동세까지도 우회하는 실지 오보체의 양태를 취한다. 그렇다고 해도 그림의 행상들이 어떤 경계를 갖는지, 어떤 시간의 표상들을 쌓아온 결과인지 쉽게 알아볼 수 없다. 형태와 행태가 부딪히고 겹치거나 다른 패턴을 띠는데, 무엇을 참조하고 추상해 낸 것일지 알기 어려운 그림들은 온갖 기호와 패턴의 과연을 적용(精用)하고 있는 듯하다.

아버지의 메모와 딸의 그림

그림에 대해 작가는 친절하게 아버지를 가리킨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고 고문과 옥살이로 정신 질환을 앓았던 아버지의 노트에는 백목하게 무한과 초월을 향한 철학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상에 부대끼며 남긴 메모는 생전에 작가가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기를 거부했던 것들이다. 작가는 다소 반성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간 우연성에 화면을 맡기고 무한의 패턴을 반복했던 작업이 아버지가 그토록 남겼던 초월성을 축소하려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태도는, 역으로 우연성과 초월의 허상을 취한 그림이 그를 거침 삼았음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를 감명하게 한 기억은 그림은 아버지가 무엇을 썼는지 배독하지 않으며, 삶이 묘사하지도 않는다. 차라리 작가는 그러는 몸과 그림을 구상하는 지체로서 그림과 몸 사이에 놓인 불화의 자리, 몸체의 자리를 지각하며 아버지가 세상과 지속했던 불화와 비틀거리는 생활의 흔적들로서 메모 주변의 기호와 문장을 끌어안은 모습이다. 우연성과 무한 패턴의 호흡으로부터 노트의 흔적을 끌어안은 그림은 그가 취한 기호들을 화면에 펼쳐내기보다 그것은 설명을 통해 아버지의 세계를 이해하기보다 아버지의 메모와 딸의 그림 사이에 놓일 수 없는 거리를 인지하면서도 원초적인 공명을 이루려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국 이해할 수 없어 말갈할 수도 없는 아버지께 대한 기억은 프랙털(fractal) 모양으로, 두께를 달리하며 벗어난 패턴을 다시 끌어내는 만프러의 패턴으로 번역된다.

그렇다면 이혼자의 연상들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을 제외하는 화가는 당신을 하찮고 보내고서야 생전에 남긴 흔적을 바탕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담는다고, 온상된 몸과 마음의 흔적으로서, 당신의 감각적 표상을 거울처럼 뒤로 펼치지 못한 잔상이자 흔적으로서 그림으로 남겨보지만, 결과적으로